주간건설 Review

519호 2018.1.19(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주간건설 Review

CONTENTS

▣ 업계 동향

- 계룡건설, 육군본부에 설 명절 위문금 전달
- 삼성물산, 베트남 하띤성에 '삼성마을' 조성
- 한화건설 이라크 직원,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참여

▣ 건설경제 일반동향

- 한국은행, 2018년 경제전망 발표
- 새 정부 3대 신(新) 건설상품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8.1.13.(토)~2018.1.19(금)> 제519호 2018.1.19(금)

<업계 동향>

◈ 계룡건설, 육군본부에 설 명절 위문금 전달

○ 1월17일 계룡건설은 육군본부를 방문해 김문곤 육군 인사사령관에게 '예비역 설 명절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하였음

○ 이날 위문금 전달식에서 한승구 계룡건설 회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국가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예비역 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와병중인 예비역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보내는 감사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김문곤 육군 인사사령관에게 설 명절 위문금을 전달한 한승구 회장(왼쪽)

○ 한편, 계룡건설은 6.25참전 예비역 육군 중령 출신이자 창업주인 고 이인구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 육군에서 추진하는 예비역 위문사업과 대민행사 등에 동참하며 민·군 협력 후원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육군과 복지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무주택 참전 유공자 내 집마련사업인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에 해마다 1억원씩 총 7억원을 후원하였음

◈ 삼성물산, 베트남 하띤성에 '삼성마을' 조성

○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월7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에서 건설업의 특성을 살린 글로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삼성 마을(Samsung Village)' 조성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음

○ 삼성물산 본사와 베트남 현장 임직원으로 구성된 22명의 봉사단은 이 기간 중 베트남 중부 하띤성 삼성 마을 4호 지역을 방문,

삼성마을 조성 봉사활동에 참여한 삼성물산 임직원들과 지역주민들

주택 및 화장실 신축과 함께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생·보건 수업활동을 펼쳤음

- 삼성물산은 2016년 12월부터 베트남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58세대 주택 신축과 보수, 30세대 가정 화장실 신축, 학교 공중화장실 2개 신축, 재난센터 1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수혜자 수는 3300여 명에 이르고 있음
- 삼성물산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동남아 저소득층 지역 삼성 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삼성물산은 2015년 2월 인도네시아 파시르할랑 지역 1호 마을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인도 차르가온 2호 마을, 같은 해 6월 베트남 냐미·반닷에 3호 마을을 준공하였음

◈ 한화건설 이라크 직원,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참여

- 1월18일 한화건설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현장 직원인 오사마 아야드(Osama Ayad Ayed)씨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화정역 인근에서 진행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에 참여하였음
- 오사마씨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공식후원사로서 성화봉송 주자를 추천할 수 있는 한화그룹이 해외 법인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핵심가치 수기 공모전'에서 최종 당선되면서 성화봉송 주자로 추천되었음

한화건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오사마 아야드 씨(왼쪽)

- 한편, 한화건설은 지난 2012년 5월, 80억달러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했고 같은 해 4월, 21억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추가로 수주해 누적 수주액 101억달러를 돌파하였음
- 현재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의 공정률은 약 32%로 1만680 가구를 준공했고 6천여 가구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음

◈ 한국은행, 2018년 경제전망 발표

○ 1월18일 한국은행은 '2018년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에 따른 수출호조와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의 2.9%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3.0%, 2019년에는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 착공면적 감소, SOC 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요내용>

❒ 경제전망

- 2018년중 국내 GDP 성장률은 3.0%(상반 3.2% → 하반 2.8%)를 나타낼 전망이며, 2019년중 성장률은 2.9%를 보일 전망
- 향후 우리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는 ①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상품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 ② 대중 교역여건 조기 개선에 따른 서비스수출 증가세 확대, ③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 및 북핵리스크 완화 등에 따른 경제심리 개선 등 있으며,
- 하방 리스크로는 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환경 악화, ②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따른 금융여건 악화, ③ 고용 개선세 미흡에 따른 내수 회복세 약화 등이 있음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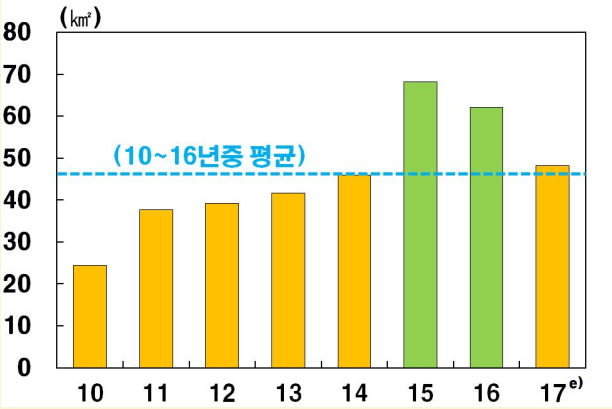
	2017			2018e)			2019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2.8	3.4	3.1	3.2	2.8	3.0	2.9
민간소비	2.1	2.8	2.5	2.9	2.5	2.7	2.7
설비투자	15.9	12.8	14.3	2.1	2.9	2.5	2.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6	3.4	3.0	3.3	2.6	2.9	2.7
건설투자	9.4	5.4	7.2	-0.5	0.0	-0.2	-2.0
상품수출	4.2	3.0	3.6	3.0	4.2	3.6	3.5
상품수입	9.3	5.3	7.3	2.2	4.1	3.2	3.1

자료 : 한국은행(2018.1.18.)

❒ **건설투자 부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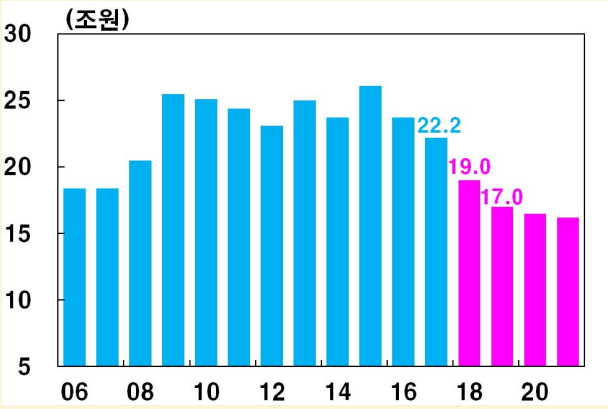
- 건설투자는 올해 본격적인 조정국면으로 진입해 연간 0.2% 감소할 전망이며, 2019년에는 연간 2.0%로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
- 주거용 건물은 2015~16년중 크게 늘어난 주택착공이 준공으로 이어지면서 증가세가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
- 비주거용 건물도 착공이 줄어들며 상가, 업무용 건물 등 상업용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
- 토목은 SOC 예산 감축 등으로 조정 지속

주택 착공면적[1)]



주: 1) '17년은 1~11월 증감율로 추정
자료: 국토교통부

중앙정부 SOC예산[1)2)]



주: 1) 추경 포함
2) 2019~21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새 정부 3대 신(新) 건설상품

○ 1월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으로 본 건설시장' 보고서를 통해 향후 신 건설상품으로 '스마트 시티,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음

<주요내용>

❒ **스마트 시티와 4차 산업혁명**

- 대선공약에서 한계에 봉착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해법으로 4차산업혁명을 다뤄왔으며, 스마트 주거,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의 사업을 제시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식 출범(2017.10),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의 킥오프 회의 개최(2017.11)
- 스마트시티 특위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과정·기재·산업·행정·환경부), 산·학·연,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스마트시티의 조성·확산을 논의 중

❒ **도시재생 뉴딜과 지방분권**

-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살기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요 방안으로 지방재정자립과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 중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구도심 재생 및 서민생활 여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며, 매년 약 2조원씩 총 5.8조원, 임대주택건설 포함시 11.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신재생 에너지**

- 경주와 포항의 지진은 원전 밀집도가 높은 경북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확대 정책을 제시
- 이에따라 국정운영계획에서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산업부), 탈원전로드맵 수립(산업·원안위)등의 정책을 마련했으며, 신재생 에너지지원에 1.6조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1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가공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등 건설관련업종을 포함한 총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함

<주요 개정내용>

❒ **최저 임금 상승으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하도급 금액 증액 의무화**

-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 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규정

❒ **작업 도구, 비품 등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에 포함**

- 하도급 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 도구,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롭게 부여되었고,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

❒ **부당 특약에 따라 부담한 하도급 업체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 신설**

-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 특약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비용(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산업 재해에 소요된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 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

❒ **비용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여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할 우려가 큰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명시적으로 규정 (철근 가공 업종)**

- 원사업자의 긴급 발주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당초 계약에 없는 철근받침대 제작 비용, 공사 현장 상황으로 인해 철근의 하차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현장 대기료 등의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명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실효성 확보 수단>

❒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 부여**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건설업종 대기업 7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납품단가 조정 원사업자 점수 부여(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 개정)**

-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납품단가를 많이 조정해 준 원사업자는 최대 5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18년 1분기 중)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월1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개정안은 '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유주택자의 청약규제를 강화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등의 청약 기회를 늘리는 것이 주요내용임

<개정안 주요내용>

❒ **재건축·재개발의 관리처분에 의한 당첨자도 재당첨 제한**

-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으로 공급받은 자는 관리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가 될 수 없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중복 당첨 제한**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로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입주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을 통한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 모집**

- 인터넷을 활용하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청약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

❒ **특별공급 대상 주택물량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

- 구분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따라 입주자를 선정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보다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부족하여 특별공급에 따른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가**

-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용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각한 자에게 관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및 공급 대상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 민영주택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고 국민주택은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

- 혼인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 제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하고 제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로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자녀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